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추사와 초의는 소치 예술의 스승



소치가 그린 백의관음도

고, 소사 부근 칠원사에서 초의를 만나 함께 하루를 묵은 후, 추사 댁을 찾았다. 소치는 당시의 상황을 “(추사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마치 옛날부터 서로 아는 것처럼 느껴졌다. 추사 선생의 위대한 덕화가 사람을 감싸는 듯했다”고 회상했다. 이때 추사는 부친의 소상을 치른 후로 상중(喪中)이었다. 장동의 여막(廬幕)에서 추사의 아우 김명희와 김상희를 만났던 소치, 후일 추사의 형제들이 보낸 우정과 후원은 이로부터 촉발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당대 유불예단(儒佛藝團)을 대표했던 인물 추사와 초의는 소치의 예술 세계에 밑거름이 되었는데, 초의의 초목법은 그의 운필법에 토대가 되었고, 추사의 가르침을 통해 그의 장대한 예술의 꽃을 피워냈다.

#### 소치는 초의의 불화 초목법 전수받고 추사 가르침으로 문인화가 기반 다져

그것은 그의 탁마 정황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초의의 훈도 아래 성의를 다했던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은 추사와의 만남이다.

당시 이들이 만난 상황은 이렇다. 1838년 금강산을 유람한 초의는 이듬해 추사에게 소치의 그림을 보여 준 것. 소치의 재주를 한 눈에 알아본 추사는 “허균의 그림 격조는 거듭 볼수록 더욱 묘해 이미 격을 이루었다고 할 만합니다. 다만 보고 들은 것이 좁아 그 좋은 솜씨를 마음대로 구사하지 못한다”고 평가한 후, 거듭하여 “이 같은 출중한 인재를 어찌 손잡고 함께 오지 않았소. 서울에서 지낸다면 그의 향상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오. 그의 그림을 보면 마음 가득 기쁨으로 넘치니 즉시 서울로 올라오게 하시오”라고 재촉하는 편지를 초의에게 보낸다. 1839년 8월 초의의 편지를 받은 소치는 서둘러 내중형을 따라 상경하였

특히 그가 율팔 산수화의 최고봉으로 칭송되는 황공망과 예찬을 본받았던 것은 추사의 영향이 컸다고 전해진다. 시문과 차에 뛰어난 안목의 가졌던 그는 특히 산수화를 잘 그렸던 문인화가로, 직업 화가들의 활동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평생 스승에 대한 의리를 지켰던 그였기에 두 스승을 이어주는 전령이기도 하였다. 진도에서 출생,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소치, 노치(老痴), 차옹(痴翁), 석치(石痴), 옥주산인(玉山山人) 등의 호를 사용하였다. 이름은 련(鍊)과 유(維)를 함께 썼다. 평생 세상을 주유하며, 간구한 삶을 영위했던 소치, 그의 인연사는 실로 후인의 귀감이 되기에 족하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소치 허련은 조선 후기 남종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가 맺은 추사와 초의와의 인연사는 참으로 흥미로운 일로, 초의를 찾아가간 일이나 한산전에서 그림을 탁마했던 인연사가 그렇다. 그는 <<몽연록(夢緣錄)>>에서 초의와의 첫 만남을 “을미(1835)년 대둔사 한산전으로 초의스님을 찾아갔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방을 빌려주어 머물게 했다”고 회상했다. 수년을 왕래하다보니 기질과 취미가 서로 같았다던 소치, 이들은 오래도록 변치 않는 사제의 정을 나누었으니 진정 속생의 인연임이 자명하다. 실제 그가 초의를 찾았던 연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진도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진도 쌍계사를 내왕하던 초의와 일찍부터 면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여튼 1835년 이후 한산전에서 그림을 탁마했던 그는 초의로부터 불화, 특히 초목법을 전수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1839년 12월 1일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에 “대개 초목법은(焦墨法: 진한 먹을 사용하여 그리는 것) 전하기 쉽지 않은 오묘한 진리인데, 우연히 허소치가 이어 드러냈으니 전해지고 전해진 초목법이 또 그대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겨집니다”고 한 것을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그가 해남 윤씨 가정본인 공재화첩과 <고씨화보(顧氏講譜)>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는데, 이는 초의가 공재 윤두서의 후손 윤종영과 윤종민, 윤종삼, 윤종삼 등과 교류하였고, 이들과 다산의 문하에서 함께 공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소치는 공재의 <가전보화(家傳寶繪)>와 <윤씨가보(尹氏家寶)>에서 윤두서와 윤덕희 등의 화첩을 본 후 “수일간 침식을 잊을 정도”로 감동한 점과 “윤종민에게 그림과 화보 등 진장해 온 것을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주었다”고 한

# “관심·열정·따뜻한 말 포교의 출발이죠”

## 정우 스님(서울 구룡사 회주·강남사암련 회장)

정우 스님은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 좋은 털털한 미소가 일품이다. 스님뿐만 아니라 문화인, 예술 애호가로도 유명한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신년을 맞아 스님과 연관이 닿았을 때도 스님은 평창 스페셜올림픽에서 장애인 불자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런 정우 스님이 발명하는 잡지 <월간 붓다>가 통권 300호를 맞이했다. 서울 도심 포교 운동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이 책을 25년간 펼친데 이어 이제 전자책으로 발간한다니 스님의 포교에 대한 원력이 새삼 돋보였다. 1월 31일 축하를 겸해 구룡사를 찾았다.

끝나면 틈틈이 보기도 했다.”

스님은 1970년대 배우 이호재, 전무송 씨 등을 만나면서 연극에 눈을 뗐다. 1984년 만해 한용운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님의 침묵’을 만들며 스님의 연극사랑은 시작된다. 이때 故 김상열을 비롯해 김갑수 씨 등과 깊게 사귀게 됐다. 정우 스님은 당시 1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을 4개월 동안 공연하며 매진을 기록, 흥행능력을 과시했다.

“순수예술인 연극은 불교와 다름이 없어. 당시에 문화포교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연극을 지원하면서 서로 상생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했어”

스님은 1987년 김상열 선생과 김갑수 씨, 현재 대표인 박명성 씨 등과 함께 ‘극단 신시’를 설립하고 재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극단 신시는 ‘맘마미아!’ ‘아이다’ ‘시카고’ 등 대작을 잇달아 무대에 올리며 대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의 구조를 갖췄다. 최근에는 구룡사 옆에 사옥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우 스님은 기도 중이었다. 기도가 끝나길 기다려 회주실로 올라가자 스님은 향기가 나는 차를 우리고 있었다.

“조용히 사는 잊힌 사람을 마허로 찾누.”

스님에게 <월간 붓다> 통권 300호를 축하드리자 스님은 “그거야 하야하면 되는 일인데”하며 손사래를 쳤다.

“사보 <구룡(九龍)>으로 1988년부터 시작했어. 그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발행했지. 이후 일산 여래사 등 도심사찰이 늘어나면서 명칭을 <월간 붓다>로 바꾼 거지”

연 1억 원에 달하는 발행비용은 스님이 불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다. 스님은 매 권마다 글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때로는 사회적 문제를 불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했다. 출가수행자로서 겪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성자순례를 다니며 ‘아! 이런 것은 우리 불자들이 봤으면 좋겠다’ 싶어 직접 카메라로 찍어 내보내기도 했다.

“보는 이의 입장에서는 책 한권이 얼마 되지 않아 보이지만 나에게는, 또 발행에 참여한 신도들에게는 이 책 한권에 1억 이상의 가치가 담겼거든. 그만큼 소중히 봐준다면 그만큼 보람도 없지. 이전 전자책으로도 발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까 해”

#### 관심이 곧 포교, 구체적 살피면 신도 모여

스님은 차를 권하며 운영 중인 인터넷방송 붓다tv로도 말을 이어갔다. 스님은 불교tv사장을 지내기도 한 남다른 미디어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풀어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과연 보거나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 이것도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누적 조회 수가 750만이야. 부처님오신 날이나 특별한 날에 명사 초청법회 때는 조회 수가 2만을 넘고 새벽에도 조회 수가 올라가. 누군가 봐준다고 생각하니 멈출 수가 없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어?”

스님은 불자들, 신도들이 보내주는 관심, 또 그런 신도들에 대한 스님들의 열정이 바로 포교라고 설명했다. 법회를 통해 절을 찾는 신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가까이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길이고, 처음 오는 관광객들에게 ‘진절할 설명’이 불교를 알고 싶어 하는 출발이라 한다. 이 말씀은 곧 스님의 포교 지론이다.

스님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과감히 뛰어 들었다. 강남 구룡사 창건을 비롯해 일산 여래사와 인천 보명사 등 국내 14곳 포교당을 창건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외국에도 절을 세웠다. 또 유치원, 출판사, 진리의 전화, 결혼상담실, ㈜수미산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생활 불교가 자리 잡도록 노력했다.

이중 극단 신시컴퍼니는 독특했다. 스님의 후원으로 현재 한국 공연계를 이끄는 최대 엔진으로 성장한 신시컴퍼니는 일견 불교와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어려서부터 스피커 라디오의 변사 목소리를 들으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 원체 영화를 좋아해 강원

10대 어린 나이에 발심 출가

1965년이었다. 은사인 흥법 스님은 조계종 종정과 통도사 방장을 지낸 월하 스님의 만상좌였다. 1969년부터 통도사 강원에서 후학들을 지도한 흥법 스님은 생전 겨울철 장작도 시주물이라 하여 아끼 정도로 정

#### 구룡사 등 국내외 포교당 23곳 창건 어린이집·유치원·진리의 전화 운영

#### 극단 신시 창단·인터넷 붓다TV <월간 붓다> 25년 발간 등 문화 포교

#### “주지직은 의호, 나눔 위해 있는 것 ‘나눔’의 공덕은 모두에게 회향”

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청빈한 삶을 살았다. 이런 흥법 스님은 정우 스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사찰 정제는 하나하나 신도들의 마음이 담겨있기에 허투루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우 스님은 은사 흥법 스님이 이른 나이에 열반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노스님 월하 스님의 보살핌으로 큰 어려움 없이 절 생활을 지냈다고 한다. 청년 스님 시절에는 통도사에서 청년회, 대학생회, 중·고등학생회를 이끌었고 군복무 때는 보병 26사단 사령부와 73연대에 군법당을 창건했다. 84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조사국장을 역임한 스님은 그해 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러 마음먹었지만 월하 스님의 격정에 서울에서 포교당을 열게 된다. 이로부터 스님의 대중 포교활동은 그 영역을 크게 넓혀 갔다.

하지만 조계종 개혁회의를 이끌었던 스님은 1998년 조계종 분규 당시 종단으로부터 ‘별반’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8년이 지나 사면됐다.

“당시 미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 월하 스님 말씀이 옳다 믿고 종단 제도권에 그 뜻을 표현했지만 여러 해 동안 종단에서 내몰리는 형국이 됐어. 당시 끝까지 나를 지켜준 것은 신도들이었지.”

스님은 여래사 불사 당시 여러 상황으로 사찰에 신경쓰지 못했지만 신도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 사찰 불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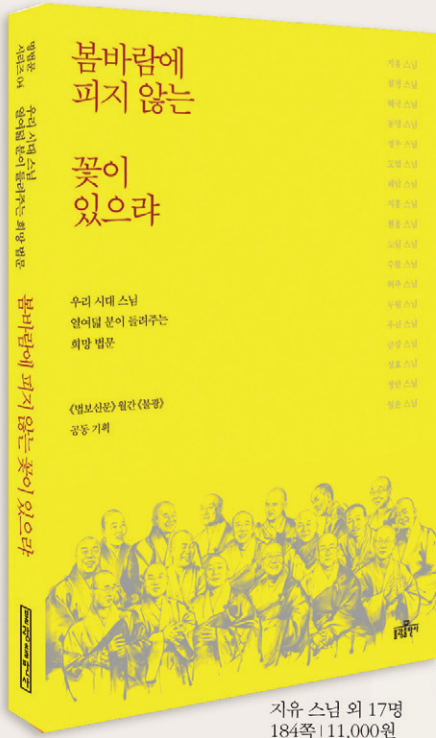
스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신도들이 있어



통도사 주지 당시 금강계단을 비롯한 사찰 곳곳을 불자들에게 개방했다.

## 열여덟 분 스님이 마음에 던지는 큰 울림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다음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명법문 시리즈04  
우리 시대 스님  
열여덟 분이 들려주는  
희망 법문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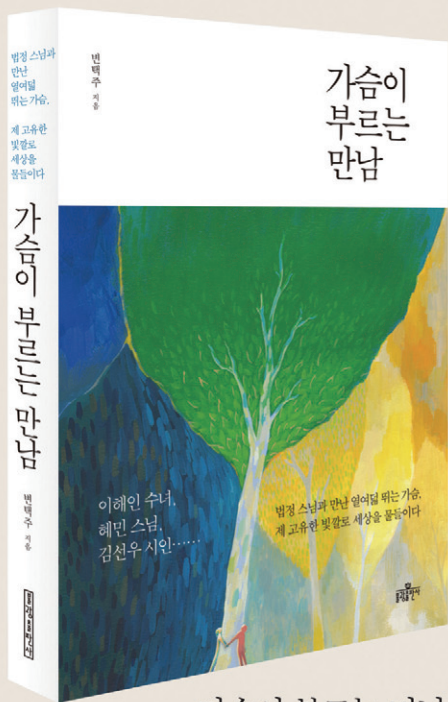


- 지유 스님
- 설경 스님
- 혜국 스님
- 동명 스님
- 정우 스님
- 도법 스님
- 혜담 스님
- 지홍 스님
- 현웅 스님
- 도일 스님
- 수불 스님
- 허주 스님
- 무원 스님
- 우진 스님
- 금강 스님
- 성효 스님
- 청안 스님
- 일운 스님

지유 스님 외 17명 184쪽 | 11,000원

가슴이 부르는 만남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해인 수녀, 혜민 스님, 김선우 시인……  
법정 스님과 만난 열여덟 뛰는 가슴, 제 고유한 빛깔로 세상을 물들이다



가슴이 부르는 만남  
백택주 지음 | 352쪽 | 15,000원

“그 사람 일생이 내게 오는 건 이 순간뿐인데 놓치고 후회 말고 잘해 드리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 ‘사람들이 날 만나면 기쁘다니까 보여 줄 수 있을 때 기꺼이 보여 드리지.’ 하는 마음이에요.” - 이해인 수녀

“여행자가 지닌 몇 권 되지 않는 책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책이 법정 스님 책이에요. …… 책에서만 스님을 뵈고 『무소유』 같은 책을 자기 삶에 특별한 표정처럼 늘 가지고 다녀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나게 돼요.” - 김선우 시인

“아무리 좋은 말이나 관심도 내가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싫어지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비취주세요. 따뜻하게. 그게 사랑이에요.” - 혜민 스님



정우 스님은 ... 1965년 통도사에서 흥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 대교과를 졸업했다. 총무원 교무국장을 지냈으며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창건 주지로 가람을 일켰다. 조계종 9~12대 총회의원, 불교TV 사장, 미국 원각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포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ryunbul.com

서다"라며 천막법당 때부터 십사일반 신심으로 함께 해 준 수많은 불자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복귀한 스님은 곧바로 불보종찰 통도사 주지에 올랐다. 대중들이 스님을 주지로 모신데 이유가 있었다. 스님은 양산 통도사 주지 당시에는 출입금지구역 이던 금강계단을 신도들에게 개방하고 산중의 철조상을 제거하는 등 정비 사업을 벌였다.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성보를 접하고 보다 신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도사는 스님이 주지로 사는 동안 각 암자로 가는 길이 순환도로로 푼 트여 불자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사찰로 변모했다. 통도사 화장막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산대제를 비롯한 사찰행사도 지역문화행사로 탈바꿈했다. 여기에 나눔 기금 12억 원을 모아 지역 각분야를 후원했다. 모두 신도, 지역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지론에 따른 것이다.

허허벌판 천막 법당에서 일으킨 구룡사를 일으킨 원동력이기도 했다. 정우 스님은 "나를 버린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하면 모든 일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현재 스님은 구룡사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주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독거어르신 지원, 초·중·고등 학생 학자금 전달, 티베트 난민 돕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구룡사와 여래사 등 스님이 세운 사찰 신도들은 자발적으로 초록복지저지금품 2만개에 동전 채우

며 모금활동을 벌였다. 2012년에는 이런 활동을 보다 넓게 퍼기위해 강남지역사암연합회를 구성해 강남지역 사찰들이 힘을 모으는데 이바지 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이 짙어, 물질적 풍요가 많은 곳이지만 반대로 곳곳에는 그로 인해 어려움이 사달리는 이들이 많다. 당장에도 강남 구룡마을에서는 어제 큰 불이 나서 집 잃은 사람들이 나왔다."

스님은 서로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눔'을 행함으로써 맑고 밝고 따스함이 변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스님은 배려와 사랑을 지니고 친절한 미소를 항상 머금은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지니고 가꾸어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가한 스님은 승가의 종지(宗旨)를 받들고 화합을 우선하며 모든 용물(用物)은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단에 구룡사와 여래사 등 장건한 국내의 모든 사설사암을 공찰로 귀속시켜 표창을 받기도 했다. 통도사 주지 당시에도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개인들이 소유하던 땅을 통도사로 되찾아 오기도 했다.

스님은 "주지직을 맡게 되었을 때는 대중을 외호(外護)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스님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전념하면 어떤 것이든 이뤄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스님의 차 마시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변해 나왔다. "차를 마실 때 물은 가득차면 따라내야 넘치지 않습니다. 또 다 마셨으면 내려 놓아야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노덕현 기자 noduc@ryunbul.com



2009년 결연 사찰인 대만 불광산사에서 통도사 자장율사 금란가사 봉헌 모습.

### 전법일기

#### 위대한 다라니 기도의 힘

"저는 주지 안 할 겁니다." 은해사에서 잘살고 있는 나를 은사 스님께서 불러 "법화사 주지할래? 보성선원 주지할래?"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한 대답이었다.

은사 스님은 잠깐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그럼 사제를 살게 할 테니 이름이나 빌리자"고 하셨다. 은사 스님의 그런 부탁까지 거절할 순 없지 않은가.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2008년 1월 나는 대구 보성선원 주지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강사가 되어서 자연과 벗하면서 우아하게(!) 살고자 했던 나의 계획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고 말았다.

처음엔 신도가 별로 없어서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부터 절집에는 목탁소리가 끊기지 않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래, 기도를 하자.'

'어떤 기도를 할까?' 문득 화성 신흥사 성일 스님이 생각났다. 성일 스님은 천수다라니독송 천일기도를 여러 번 하신 가피력으로 도량을 크게 일구어서 조계종 스님들의 귀감이 되는 분이였다. 신흥사로 전화를 걸어 성일 스님의 기도법을 배웠다.

첫 번째 백일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천수경>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았다. 한글대장경 <일자 불정륜왕경>안에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 만무대비심다라니경>이 있다. 이 경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송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잘 설명돼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대비심다라니 주문이 있어... 중생들이 안락을 얻고, 모든 병을 제거하고,

### 목탁소리 안 끊기면 먹고 산다



그림·박구원

신도 없이 시작한 절집기도  
신묘장구대다라니 1500일 기도  
신도 모이고 지역 사회에 기여

수명을 얻고, 풍요함을 얻으며, 모든 죄를 없애고, 장애와 어려움을 멀리 여의게 하고, 온갖 선을 성취하게 하고, 온갖 두려움을 멀리 여의게 하고... 임종할 때에十方세계의 부처님들께서 모두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어느 국토든 태어나게 하고 그 원에 따라 모두 왕생하게 할 것입니다."

이 다라니만 열심히 하면 살아서 온갖 소원이

다 이뤄지고 죽은 이후에는 극락세계까지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말이였다.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현세에서 이익을 얻고 죽어서 극락 간다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될까? 경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저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고 또 아미타여래의 명호도 간절히 염한 뒤에 이 다라니를 외우되 하루에 21번, 혹은 49번을 채우면 억겁동안 지은 생사의 중죄가 소멸할 것입니다."

하루에 21번이나 49번을 하라고 하였다. 하루 세 번, 매번 21번씩 하게 되면 하루 63번하게 되니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100일기도에 들어갔다. 계획대로 다라니를 독송하고 관음정근을 10~20분 했다. 이렇게 백일기도를 1년에 세 번하여 지금은 15번째 백일기도를 하고 있다. 그간 부친 스님이 잠깐씩 산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혼자 기도했다. 목탁소리를 높여 염불을 할 때면 신심이 샘솟듯 솟구쳤다.

우리 신도들은 이제 이력이 나서 다라니 독송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 매월 보름밤에는 다라니 108독을 하는데 미동도 않고 앉아 다라니를 마칠 정도로 숙련됐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고. 그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신도가 많이 늘었고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도량이 되었다고. 바로 이것이 다라니 독송의 가피라고.



한옥 스님(제)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이산화탄소 저감형 LED 전구		판공대 전구		주름 등		영정기 전구
	찬덕 불교 LED 전구		영정기 전구		영 가 등		영 가 등
	공 단 등		영정기 전구		기 린 영 정 기		기 린 영 정 기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윤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 LED 전구
- 기존 전구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